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2일 오후 광주 실감콘텐츠큐브(GCC) MX스튜디오에서 열린 '광주 AI 팹리스 클러스터 협력 컨퍼런스'에 참석해 조인철 국회의원,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 등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제공

AI반도체 허브도약... 광주시, 팹리스 전략 공유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2일 광주 실감콘텐츠큐브 MX스튜디오에서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조망하고 광주를 중심으로 한 팹리스(Fabliss)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AI 팹리스 클러스터 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조인철·정진욱 국회의원,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 이경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강현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호남권연구본부장과 함께 국내외 유망 팹리스 기업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국내외 메이저 팹리스와 반도체 IP 벤더(공급업체)들이 대거 참여,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AI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컨퍼런스는 국가AI데이터센터, 실증장비 77종, AI반도체 검증체계 등이 갖춰진 광주지역 첨단 기반시설의 산업 발전 전

‘AI 팹리스 협력 컨퍼런스’ 개최... 국내외 기업·전문가 참여

기술협력·성장전략 공유... 클러스터 조성 협력방안 등 논의

인프라·기술·인재 연결하는 ‘AI 실증도시 광주’ 강점 부각

강기정 시장 “팹리스 기술검증·성장에 실질적 환경 제공할 것”

락을 공유하고, 산업계·학계·연구기관 간 협력 모델을 구체화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CA) 단장이 좌장을 맡은 주제발표에서는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이 ‘AI 반도체 산업현황 및 전망’을 통해 글로벌 경쟁 전략을 소개하고, 인공지능(AI) 중심도시 광주의 성공 비전을 함께 제시했다.

강현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호남권연구본부장은 ‘광주 AI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미래 발전 전략’을 발표하며 온디바이스 AI 전주기 지원체계, 전문 인력 양성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는 박준규 ㈜에이디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신동주 ㈜모빌린트 대표이사, 김경욱 ㈜넵엑스 부사장, 김창수 ㈜에임퓨처 대표이사, 오유섭 베리실리온 Inc. 한국지사장 등 국내외 주요 팹리스 기업과 IP벤더,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이 참여해 가치사슬(밸류체인) 협력방안과 기술 동향, 인재 양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패널들은 “팹리스 산업은 IP, 디자인하우스, 제조, 검증 환경까지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며 “광주는 AI 데이터센터와 실증 기반, 실제 서비스 적용 환경을 갖춘

‘AI 실증도시’로서의 강점을 지닌 최적의 입지”라고 평가했다. 또 “수도권은 이미 포화된 산업 구조로 작은 기업이 성장할 기회가 제한적이나 광주는 집중적인 지원과 실증 환경이 가능해 중소 팹리스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도시”라고 밝혔다.

이어 “팹리스·디자인하우스·IP 벤더들이 클러스터 내 실시간 협업할 수 있는 구조는 개발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큰 장점”이라며 “광주시가 협력 조정자 역할을 수행한다면 산업 전반의 혁신 속도도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는 AI 국가 시범도시로,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무한히 성장할 것이다”며 “광주는 긴 시간 동안 인프라 구축과 인재양성, 기업유치를 통해 AI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온 만큼 기업 IP, 디자인하우스, 제조, 실증, 인제까지 모든 연결고리를 광주에서 풀어낼 수 있도록 광주시가 기업의 성공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 /박도일 기자



광주시내버스 파업 재개 사흘째인 11일 오전 광주 광산구 광주송정역버스정류장에 시내버스 파업 운행 지면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는 사측과 임금 인상 등에 대한 협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 5일 총파업에 돌입한 뒤 연휴 동안 준법투쟁을 벌이다 지난 9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광주시는 대체기사를 투입해 운행률을 80%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파업으로 인해 일부 노선은 배차간격이 늘어났다. /뉴스시

광주 시내버스 파업 재개 나흘째

노사간 합의도 못 찾아... 장기화 조짐

광주 시내버스 파업 재개 나흘째 노사 입장이 팽팽선을 달리는데다 파업 참여 여부를 두고 노조 분열이 생기면서 파업 장기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파업 여파에 따라 버스 1000대 중 778대가 운행하고 있다.

파업 재개 사흘째에 접어들면서부터 파업에 불참하는 노조원들이 나오며 내부 분열이 생기고 있다.

앞서 전날 일부 노조원들이 파업 불참 선언을 한 회사 차고지를 막아서

면서 일부 출차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날도 노조 일부는 파업 불참 선언 등을 한 회사 2곳에서 농성을 벌인 뒤 해산했다.

큰 물리적 접촉 없이 이날 첫 차는 정상 운행했다.

노사는 3차 조정 협의가 결렬된 이후 이렇다 할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체 기사로 투입되는 비노조원 기사들의 피로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운행률 감소는 불가피하다. /전광훈 기자

대주주 만만 금호타이어 노조 “공장 정상화 무대책” 규탄

사측 “국내 독립 경영체계... 수습대책 마련”

금호타이어 노조가 대형 화재 이후 한 달 가까이 공장 정상화 대책을 내놓지 않은 대주주를 규탄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화재 발생 이후 26일이 지났지만 더블스타와 금호타이어 경영진은 아무런 결정도 내리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노조는 “(대주주) 더블스타는 투자자들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고 공장 화재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이러한 더블스타의 태도는 광주 공장 노동자 2500여 명의 고용과 더불어 지역민의 기대를 외면한 무책임한 자세”라

고 비판했다.

이에 금호타이어측은 “수습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노사 협의를 성실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영 체계에 대해 “금호타이어는 국내 경영진의 독립·책임 경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며 “경영진은 회사 발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실행해오고 있다. 지역시민사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 10일 중국 청도에서 최대주주 더블스타 경영진과 면담을 했다. 노조는 노동자 고용과 공장 이전, 신공장 건설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건의했다. /이승원 기자

구례군에 기부하고 세액공제도 받으세요

구례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 사용처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 지역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

문의 구례군 총무과 061-780-2307

구례고향사랑기부제란?

구례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이 구례군에 기부하고, 구례군은 이를 모아서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하는 제도

기부한도액

1인당 연간 2,000만원 한도, 법인불가

기부혜택

혜택 1 세액공제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혜택 2 답례품 제공
기부금의 30% 이내
-구례사랑상품권
-구례특산물(흑돼지, 한우, 천연벌꿀 등)

기부방법

온라인
은행이플도 가능해요

국민 신한 i-ONE Bank 하나 기업 하나

QR코드
고향사랑e음 바로가기

기부부터 답례품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자동 세액공제까지!

오프라인
전국NH농협 방문

고향사랑e음 접속 및 가입
↓
자치단체에 기부하기 클릭
(지역선택 : 전라남도 구례군)
↓
기부금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
답례품 둘러보기 클릭
(지역선택 : 전라남도 구례군)
↓
답례품 주문하기

전국NH농협 방문 → 기부금 납부 → 답례품 주문하기